

명시의 한 구절 -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의 의미  
김소월의 「진달래 꽃」

---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시인 김소월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는 민요조의 서정시를 완성한 시인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정한의 노래를 부르다가 요절한 불행한 시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 민족의 고통을 애절하게 노래한 민족 시인으로 추앙되기도 한다.

김소월은 한국 현대시에서 시적 형식의 완결을 추구해 온 대표적인 시인이다. 현대시의 성립과 함께 문제시되었던 새로운 시 형식의 추구 과정을 생각한다면, 그의 시는 시 형식의 독창성을 확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발견한 새로운 시적 형식은 전통적인 민요의 울조와 토속적인 언어 감각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균제된 형식을 이루고 있으며, 그 자체의 형식을 통해 완결의 미학을 추구하고 있다.

김소월의 시가 포괄하고 있는 정서의 폭과 깊이는 서정시가 도달할 수 있

는 궁극적인 경지에 맞닿아 있다. 흔히 정한(情恨)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소월시의 정서적 특질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민족적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이 가로놓여 있다. 그의 시에서 즐겨 노래하고 있는 대상은 '가신님'이거나, '떠나온 고향'이다. 임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의 심정은 어떤 면에서 자못 퇴영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시는 다시 만나기 어렵고, 다시 찾기 힘든 그리움의 대상을 끈질기게 추구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낭만적이기도 하다. 김소월은 그의 대부분의 시에서 서정시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정감의 세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는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그려내기보다는, 개인적인 정감의 세계 속으로 자연을 끌어들여 그 정조에 바탕을 두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에서 즐겨 다루어지고 있는 자연은 서정적 자아의 내면 공간으로 바뀌어지고 있으며, 개별적인 정서의 실체로 기능하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진달래꽃」이다. 시 「진달래꽃」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22년이며, 잡지 『개벽』 7월호(제25호)에 수록되어 있다. 김소월의 나이 스무 살 때의 일이다. 이 해에 김소월은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와 배재고보 5학년에 편입하였다. 「금잔디」, 「엄마야 누나야」, 「개여울」 등도 모두 이 해에 『개벽』에 발표된 작품들이다. 「진달래꽃」은 그 뒤 김소월 자신이 펴낸 시집 『진달래꽃』(매문사)의 표제작이 되어 시집에 수록되었다. 그런데 당시 『개벽』지의 표기대로 이 작품을 옮겨보면 시집 『진달래꽃』에 수록된 시 「진달래꽃」과 여러 군데 다른 표현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

진달내솅 (民謠詩)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업시  
고히고히 보내들이우리다.

寧邊엔 藥山  
그 진달내솅을  
한아름 짜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길 발거름마다  
뿌려노흔 그솅을  
고히나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흘니우리다.

『開闢』(25호, 1922.7), PP.146-147.

(나)

진달내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엽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寧邊에 藥山

진달내꽃

아름싸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거름거름

노한그꽃출

삼분히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죽어도아니 눈물흘니우리다

시집 『진달내꽃』 (매문사, 1925), PP. 190-191.

앞의 인용 작품을 보면, 김소월이 『개벽』지에 발표했던 (가)를 시집 『진달내꽃』에 (나)와 같이 수록하면서 각 연의 구성과 시어의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각 연과 행의 구성에 일정한

규칙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적 형태의 고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복되는 울조의 규칙에 따라 어휘를 바꾸고, 음수를 맞추기 위해 관형사나 조사를 생략하며, 어감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어휘를 골라 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3연의 변화이다. 첫 행에서는 '길'이 나오고, '발거름마다'라는 어구를 쓰고 있다. 이것은 '가시는 걸음걸음'으로 모두 고쳐진다. 제2행에서는 '뿌려노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연의 제3행에서 쓰인 '뿌리우리다'와 어휘가 중복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노흔그숫출'로 고쳤다. 그리고 제3행에서 '고히나'라는 부사를 '삼분히'로 바꾸고, '즈려밟고'는 '즈려밟고'로 고쳐 썼다.

그런데 김소월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스승인 안서 김억이 엮는 시집 『소월시초(素月詩抄)』에서는 이 작품의 일부 표기법을 바꾸고 띄어쓰기를 아래와 같이 고쳤다. 특히 제3연의 경우 '즈려밟고'를 '지레 밟고'로 바꾸어 놓았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달래꽃」의 형태가 바로 김억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寧邊에 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분히 지레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김억 편, 『소월시초』 PP. 77-78.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김소월이 쓴 '즈러밟고'와 김억이 고쳐놓은 '지레 밟고' 가운데 어느 것을 정본의 표기로 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소월이 쓰고 있는 '즈러밟고'라는 말은 앞서 예시한 것처럼, 최초에는 '즈러밟고'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두 개의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밝혀 줄 수 있는 용례를 김소월의 시 가운데에서는 다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김억은 그의 시 「눈」(시집 『해파리의 노래』 22면)에서 '지러밟으면'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다. 만일 '즈러', '즈러', '지러'가 모두 같은 뜻을 가지는 말이라면 표기의 통일이 필요하며, 그 의미도 분명하게 규정해 두어야 한다. 일반 사전에 이 단어가 제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국어학자이면서 바로 평북 정주 태생이기도 한 이기문 교수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즈려〉는 지금까지 그 해석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온 것으로 안다. 적어도 서울말에서 이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주 방언의 〈지레〉 또는 〈지리〉에서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다. 〈지레밟다〉 또는 〈지리밟다〉는 발 밑에 있는 것을 힘을 주어 밟는 동작을 가리킨다. 『平北辭典』에 〈지리디디다〉(발밑에 든 물건이 움직이거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짓눌러 디디다)가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볼 때, 〈즈려밟고〉와 그 위에 있는 〈삼분히〉 사이에 의미상의 어긋남이 생기는 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풀밭을 걸어갈 때, 아무리 가만히 밟아도, 풀이 발 밑에서 쓰러진다. 이렇게 힘을 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될 때, 역시 〈지리밟다〉를 쓰는 것은 정주 방언에서는 조금도 어색한 일이 아니다. 위의 시에서는 〈꽃〉을 밟는 동작인데, 이 경우는 아무리 사뿐히 한다 해도 잔혹한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삼분히 즈려밟고〉란 표현의 참뜻을 이해하게 된다.

- 이기문, 「소월시의 언어에 대하여」(『심상』, 1982. 12.)

이러한 해석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진달래꽃」의 ‘즈려밟고’라는 말은 ‘힘주어 밟고’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모두 이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에서 ‘즈려밟고’라는 동작과 이를 한정하고 있는 ‘사뿐히’라는 부사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이다. ‘사뿐히 힘주어 밟고’라는 해석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이승훈 교수는 이것을 소월의 역설적인 언어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나는 이같은 부자연스런 의미를 극복하기 위해 '지레 밟고'라는 김억의 표기를 정본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평안도 방언이 아니라 표준어에서 흔히 많이 쓰는 '지레'라는 부사를 김소월이 평안도 방언의 발음대로 표기했던 것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다.

'지레'라는 말은 '어떤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라는 뜻을 갖는다. 예를 들면, '지레 오다(미리 먼저 오다)'라든지, '지레 짐작하다' 또는 '지레채다(미리 알아채다)'에서처럼 뒤의 말과 어울려 쓰인다. 명사와 결합하여 복합 명사를 이루는 예로는 '지레김치(보통 김장 김치보다 일찍이 담가먹는 김치)', '지레뜸(밥에 뜸이 들기 전에 푸는 일. 또는 그 밥)'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라면, 김소월의 시에서 '지레 밟고'는 '남이 밟고 가기 전에 먼저 밟고'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바로 이같은 뜻을 전체 시의 내용과 결부시키면 그 의미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설정되어 있는 시적 정황은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는 입'과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는 나' 사이의 내면 공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서정적 자아는 떠나가는 입에 대한 원망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자 한다. 여기서 자기 사랑의 표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은 '진달래꽃'이다. 봄이 되면 산과 들에 지천으로 피어나는 것이 진달래꽃이기 때문에, 진달래꽃은 한국인들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그 느낌도 자연스럽다. 이 시의 표현대로 '영변의 약산'에 피어 있는 진달래꽃은 바로 우리네의 곁에 있으며, 일상의 체험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



이다. 시인은 이같은 체험의 진실성에 근거하여 자기 정서를 표현하고, 그 표현에서 새로운 시적 감응력을 끌어내고자 한다.

봄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진달래꽃은 이 시에서 더 이상 평범한 자연물이 아니다. ‘영변의 약산’에 피는 진달래꽃은 이제 영변 약산에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 아름다운 사랑의 의미로 채색되어 시에 등장한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분홍빛의 사랑으로 시적 의미를 내면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는 한 아름의 진달래꽃은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시의 서정적 자이는 떠나는 임 앞에서 진달래꽃을 통해 자기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상황적 아이러니에 해당된다. 이 시에서 이별의 슬픔이 내면화하고 그 대신에 사랑의 진실이 자리잡게 되는 것은 이러한 시적 형상화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별의 순간에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확인법은 소월이 만든 정조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의 화자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길 위에 뿌려 놓은 그 진달래꽃을 다른 사람이 밟기 전에 임이 지레(먼저) 밟고 가라는 것이다. 여기서 임이 떠나갈 길 위에 뿌려져 사랑의 충만을 드러내던 진달래꽃에 또하나의 의미가 덧붙여진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순결성이다. 아무도 밟지 않은 진달래꽃은 순결한 사랑을 의미한다. 이별의 순간에 임 앞에 진달래꽃을 뿌리며 자기 사랑을 보여주고, 다시 자신의 순결한 사랑 모두를 바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시의 정조는 이 대목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그려놓고 있는 이별의 순간은 슬픔의 장면이 아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러워해야 하는 때도 아니다. 오히려 자기 사랑의 깊이와 진정성을 보여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임에게 바칠 수 있는 황홀의 순간이다. 이별을 눈물의 언어 대신에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꾸밀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에서 서정적 자아는 그러므로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마디 덧붙이자. 김억의 시 「눈」에 나오는 '지러뵈으면'의 경우도 '지레뵈으면'의 방언 발음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뜻도 '하얀 눈을 힘주어 뵈으면'이 아니라, '아무도 뵈지 않은 하얀 눈을 먼저 뵈으면'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